“보해저축은행, 조기 영업재개 가능”

김석동 금융위원장 목포서 금융지원 대책회의
“가지급금 시기 앞당기고 미소금융 한도 확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보해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BIS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서민 금융지원 대책회의’에서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 지역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보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예금자, 여신거래기업 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2주 후부터 지급하고 은행을 통해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국민은행·광주은행·기업은행·농협 등 4개은행에서 긴급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포지역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9개 지점의 연간 한도를 지점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에 대해서 1년 연장하고 신규는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신용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은행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업당 3억원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한 지원을 내놓았다.

대책회의에는 정종득 목포시장,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 회의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은 보해 저축은행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시장은 또 보해 저축은행은 대부분 지역 중소 상공인이 이용하는 만큼 일시 회수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대출연장 등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상큼한 봄내음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조창현) 지하1층 식품관 행사장에서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로회복에 좋은 제주산 한라봉, 천혜향, 밀감을 선보여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우량채권 양수·만기도래 대출금 연장”

광주은행 보해저축銀 특별지원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보해상호저축은행 거래 예금고객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책을 실시한다.

보해상호저축은행 여신고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해저축은행 우량채권 양수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협의, 1인당 최고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예금담보대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추가예금담보대출 지원과 서민전용대출인 KJB 새희망홀씨대출을 병행 지원한다.

이와함께 보해상호저축은행과 광주은행을 복수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1년 동안 기한 연장해주고 3개월마다 상환해야 했던 시설자금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해 소상공인 과 소기업 특별지원을 하고,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에도 총 7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보해상호저축은행 예금고객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별지원책에 관한 상담을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문의 기업영업전략부(062-239-6501), 개인영업전략부(062-239-5201), 고객상담센터(1588-3388). /최재호기자 lion@

저축銀 대주주들 자구책 마련 부심

일부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지자 대주주들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도민·새누리·우리저축은행과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및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유동성 확보와 자본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예금주들의 잇따른 예금인출로 곤욕을 치르는 도민저축은행의 오는 24일 당국에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저축은행은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전날 3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380억원의 예금을 예치해 유동성을 확보해줬다.

우리저축은행도 대주주인 우신종합건설이 12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까지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남은행에서 채권 양도를 통해 500억원을 수혈했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보해양조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혀 대주주의 자구 노력으로 회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해양조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8일 320억원 유상증자를 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74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해양조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자 자금을 만들어 보해저축은행을 살려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곳이 모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계열은 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을 매각해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잇따른 자구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부실 대출과 방만 경영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연합뉴스

고등어 ↑
갈 치 ↑
오징어 ↑

구제역·AI 파동에 수산물도 ‘금값’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육류 값이 뛰어오른 가운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도 ‘금값’이 되면서 고기를 대신해 식탁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겨우내 남해와 동해안 지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폭설과 풍랑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반면, 수산물을 찾는 사람은 늘어나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국산 생물 오징어 소매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은 1마리당 2천898원으로, 1년 전의 1949원보다 48.7% 뛰어올랐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도 1년 전보다 15.5% 비싼 2980원에 팔리고 있다. 작년 여름 장마철에 강수량이 부족해 플랑크톤이 줄면서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오징어 어획량이 20%가량 줄었고 원양 오징어 물량 역시 줄었기 때문이다.

생물뿐 아니라 냉동 비축분 역시 값이 뛰어 산지 거래가격이 1박스(33마리)당 3만7000원으로 1년새 68%가량 치솟았다.

조기 가격도 뜀박질했다. 이마트에서 1마리당 110g 내외의 참조기는 2280원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고등어 역시 1마리당 소매가가 4380원(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으로, 1년 전보다 41.9% 급등했다. 고등어 어획량이 줄고 값은 뛰자 ‘불똥’이 갈치로도 튀었다.

작년 갈치 산지 가격은 2009년보다도 30~40% 오른 1박스(33마리)당 11만원이었으나 올해는12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당분간 수산물 가격은 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징어는 원양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는 4월까지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굴비 역시 여름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채소가격은 하락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육류와 함께 소비하는 상추, 풋고추 등의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2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상추 한상자(4kg) 평균 가격은 6634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풋고추 역시 가격이 폭락해 지난 4개월 한 상자(10kg) 평균 가격은 3만6438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60.4% 수준이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등록제·영업시간 제한 법률 개정해야”

추가입점 방안모색 토론회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제 시행 및 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 규정을 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마트 추가 입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대형 유통회사들이 골목상권까지 뛰어 들어서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팀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하고, 일시정지 권고 위반시 이를 강제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병일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팀장은 “매곡동에 이마트가 입점할 경우 ▲고려 중·고교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면학 및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 ▲학습권 침해 ▲학교 건물의 안전도 확보 어려움 등 교육적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이어 “학교정화구역(200m) 내의 대형마트 입점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마트 입점도 심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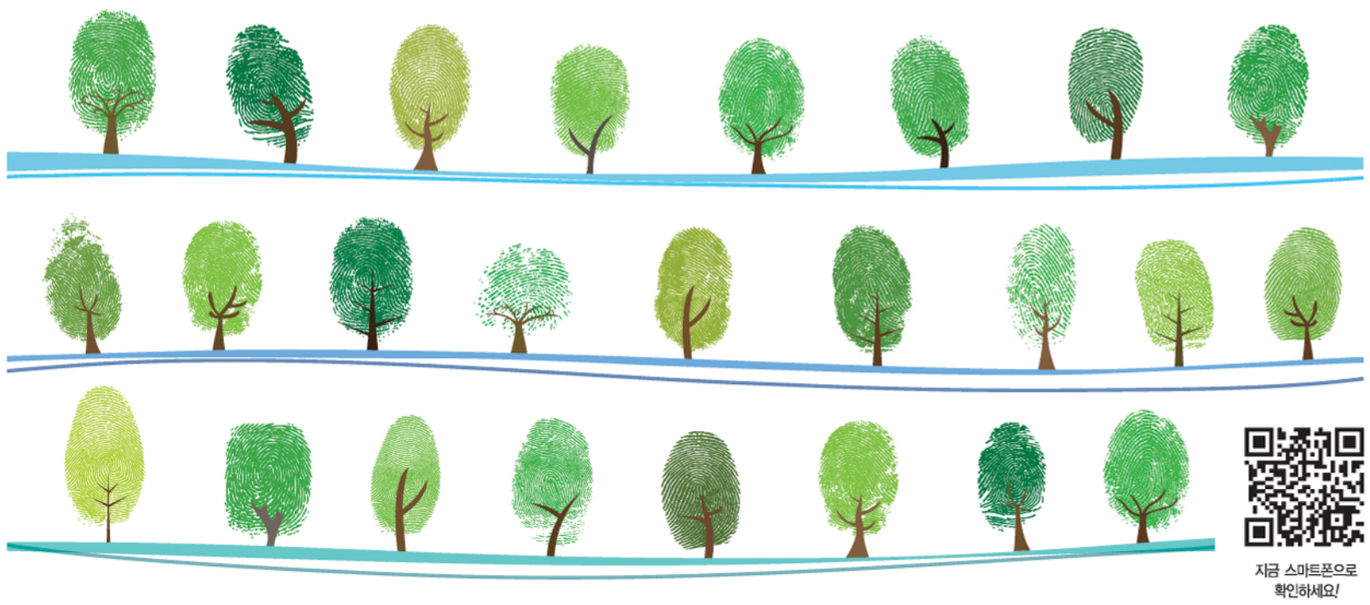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전주연 광주시의원(민노·비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광주시와 관련기관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강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 - 영산강 희망의 숲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우리 강에 생명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변 나무심기」와 함께하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강변이 테마 숲 조성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꾸며집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희망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 심는 나무에는 심으시는 분의 이름을 담은 표찰을 달아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영산강을 아름답게 꾸미고,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세요.

희망캡슐로 추억을 간직하세요!
참가하신분들의 사연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해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나만의 나무’를 직접 구입하여 심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여 대 상 개인,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접 수 기 간 2011년 2월 22일 ~ 3월 20일
신 청 방 법 “www.4rivers.go.kr/tree”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수종, 수량, 표찰 기재문구 등 작성

※ 행사일, 행사장소, 우편접수 주소는 “www.4rivers.go.kr/tree”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광주광역시 GWANGJU CITY